

[중국, 중국의료시장] 중국 의료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야기

중국 의료 · 헬스케어



중국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20년이 되면 중국의 의료시장이 약 1,400조 원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40조 원대인 것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평균 18%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변화만 봐도 베이징과 텐진을 포함한 주요 7개 도시에 100% 외국인 자본으로 독립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졌고, 중국 보건 당국의 의료산업 육성 정책과 의료보험 개편 등의 조치까지 더해져 중국의 의료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과 지리적 · 문화적으로 가깝고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소식입니다. 얼마 전 서울성모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수출하고,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의 위탁 운영자로 결정된 사례처럼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이 중국에 진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열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1,400조 원대의 시장에 당당히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14년 현재 모두 38개의 병원이 중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형외과와 치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진출 역사는 거의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소식은 들리지 않네요. 심지어 현지 파트너 업체에 끌려 다니다가 혈값에 매각하고 손을 떼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한 병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선 한국의 병원들은 중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운영과 병원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하면서 주로 의료 인력 제공을 책임지고, 중국 파트너 업체가 중국 내에서의 각종 인허가와 운영 실무 분야를 담당하는 형식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기관(혹은 의료서비스 업체)이 중국 의료 시장에 제대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는 단순히 중국에서 오래 비즈니스를 했거나,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판시(關係)가 남다른 사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서비스는 여느 서비스와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의료서비스는 훌륭한 의료진과 의료진의 실력을 받쳐줄 의료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무형의 상품인데다가, 각기 다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 매번 달라지고, 환자의 만족도 역시 단순히 치료 효과로만 결정되지 않는 복합적 형태입니다. 여기에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특수성도 더해지죠.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해도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데, 하물며 타지에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까지 넘어야 하는 중국에서의 의료 서비스라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한국 의료기관(혹은 의료서비스 업체)이 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중국인들이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로컬 병원에 어떤 불만을 품고 있고, 지역별 특정 질환에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로컬 병원의 진료 현장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는 중국 의료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중국어와 판시 보다 더욱 핵심적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는 중국 의료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한국인 의료진이 중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법과 노동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보조 인력(중국인)과의 협업과 관리(업무, 복지 등),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중국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병원 문화 확립' 같은 부분도 현장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인 독특한 경제 체제 속에서 운영됩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정보의 대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검열하고 관리하지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소식만 믿고 병원 운영 방향이나 투자 규모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가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히거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만의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잘 알고 흐름을 읽어내는 책사(策士)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는 중국 의료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국 의료서비스 전문가는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비즈니스·경제, 중국, 중국의료시장, 의료개방, 중국병원, 합작병원, 병원관리, 헬스케어, 중국진출
발행일 2014.10.13.

다음글



**[중국의료, 헬스케어] 한국 의사
들이 중국에 의료..**

[중국의료, 헬스케어]한국 의사들이 중
국에 의료행위를 할 때 알아야 할 ...



신영중(nowmedi) | 중국 헬스케어 인사이드

나우중의컨설팅 대표 / 중의사 / 중국 의료 헬스케어 전문 컨설팅, 중국 진출,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한중 파트너십, MSO / www.nowmedi.com